



“액 가고 복 와라” 봄 깨우는 입춘굿에 ‘들썩’

2026 탐라국 입춘굿 내일까지 관덕정 일대에서 첫날 거리굿 마당… 낭쉐몰이·사리살성 등 복적

“만복 들어왔져, 입춘대길.” “액은 가고 복은 와라.”

2일 제주시 관덕정 광장이 제주의 봄을 깨우는 소리로 들썩였다. 입춘(2월 4일)을 맞아 여는 제주 대표 전통 축제인 ‘2026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이 시작돼서다.

올해 ‘탐라국 입춘굿’은 ‘날 베룡 땅 움짝, 봄이 들썩!’을 슬로건으로 한 해의 풍요와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입춘맞이’로 시작해 이날 본행사 들어간 ‘탐라국 입춘굿’은 첫날부터 신명나는 ‘거리굿’으로 떠들썩했다.

거리굿의 시작은 ‘춘경문굿’이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펼쳐진 ‘춘경문굿’은 제주 주요 관청과 제주의 교통 관문인 공항과 항만을 돌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제주시에 선 제주도청과 도의회 등 관공서·민속오일시장·제주공항에서, 서귀포시에선 서귀포시청·매일울레시장·이중섭거리에서 진행됐다. 또 제주시민속보존회를 중심으로 25개 마을에서 거리굿도 이어졌다.

축제 첫날부터 주 무대인 관덕정 광장에서는 세계제·낭쉐코사·낭쉐몰이·사리살성 등 핵심 제의들이 펼쳐졌다. ‘세계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조현관)와 송맹석 제주민

예총 이사장(아현관), 송은준 한국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장(종현관)이 삼현관을 맡아 하늘에서 오곡 씨앗을 가져온 자청비에게 한해의 풍농을 기원했다. 이어 입춘굿의 상징물인 ‘낭쉐(제주어로 나무소)’를 중심으로 ‘낭쉐코사’와 입춘굿의 오랜 전통인 ‘낭쉐몰이’가 이어졌다.

칠미리당영등굿보존회가 입춘 전날 심방들이 모여 나무로 소를 만들고 금줄을 친 후 고사를 지낸 ‘낭쉐코사’를 재현했다. 이후 호장이 생명력과 풍농을 의미하는 용비늘 문양이 새겨진 ‘낭쉐’를 물며 모의 능경의례를 행했던 것을 시연한 ‘낭쉐몰이’ 퍼레이드가 관덕정부터 제주시 중앙거리까지 이어졌다. 봄을 시샘하듯 차가운 바람에 살짝 눈이 내리기도 했지만 이날 축제장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같이 걸으며 봄이 오는 기쁨을 함께했다. 항아리를 깨서 액운을 제주 밖으로 내보내는 의식인 ‘사리살성’ 등도 불거리를 더했다. 호장을 맡은 청년 농부인 강성옥씨는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건강한 한해 보내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둘째 날인 3일에는 ‘열립굿’으로 꾸며진다. 제주성안과 서귀포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입춘 성안기행을 비롯해 칠성신에게 풍요



‘2026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이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 ‘춘경문굿’(사진 위쪽)과 오후 제주시 관덕정 일원에서 이어진 ‘낭쉐몰이’.

강희만·박소정기자

를 비는 ‘칠성비념’, 붉은 말의 기운을 지닌 병오년의 상징성을 담은 입춘 휘호 퍼포먼스, 공연 마당 등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4일 입춘일에 열리는 ‘입춘굿’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본굿이다. 제주도의 1만8000 신들을 굿판으로 청해 들이는 제의

인 초감제를 시작으로 자청비놀이, 농경신에 대한 의례로 풍농을 기원하는 ‘말놀이·세경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춘날 입춘굿과 함께 여는 ‘입춘굿 탈놀이’ 등이 진행된다. 출연진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입춘대동’도 열린다.

박소정기자 cosorong@halla.com

지역 대표 예술단체에 제주 2곳 선정

예술공간 오이·(사)마로 4곳 도전했지만 최종 2곳 공공 공연장과 협업 공연

정부의 2026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대상에 제주 예술단체 2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대표 예

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공연예술단체 41곳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분야별로 연극 17곳, 전통예술 11곳, 클래식·음악 8곳, 무용 5곳이다. 이 중 제주에선 예술공간 오이(연극 분야)와 사단법인 마로(전통 분야)가 포함됐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 활동하

는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선발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최종 심의를 진행해 결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단체 102곳이 참여했다.

한편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과 지역 공연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1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대표 예

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공연예술단체 41곳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분야별로 연극 17곳, 전통예술 11곳, 클래식·음악 8곳, 무용 5곳이다. 이 중 제주에선 예술공간 오이(연극 분야)와 사단법인 마로(전통 분야)가 포함됐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 활동하

는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선발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최종 심의를 진행해 결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단체 102곳이 참여했다.

한편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과 지역 공연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1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축
임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14대 회장



김 우 찬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을 갖고 변화를 이끄는 리더쉽으로 제주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협회제주협회 서귀포시지부
지부장 한 명 이 외 회원 일동

축
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김 대 현
(서귀포시 출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취임을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진회
회장 강 용 철 외 회원 일동

축
상
민주평통 의장(대통령)표창



양 일 성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기인 대표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부회장

민주평통 의장(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회장직무대행 고영준 외 회원 일동

태흥호텔 김기관 회장님께서

태흥1리, 2리, 3리 마을발전기금으로 각 마을별 노인회 2천만원, 마을회 3천만원 총 1억5천만원 기탁
소중한 기탁금은 마을 발전과 어르신들의 편의와
다양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흥1리 이장 한대현
태흥2리 이장 이홍철 외 리민 일동
태흥3리 이장 오동현

데이브레이크에 ‘어쩌면 해피엔딩’ 까지

도문예진홍원 기획공연 시작

21일 첫 ‘제주 플레이리스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뮤지션을 초청해 올해 기획공연의 문을 연다. 이를 시작으로 클래식, 국악,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기획공연이 이어진다. 제주 창작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4월 11일), 어린이 오페라 ‘루카의 모험’(5월 2일), 연극 ‘분홍립스틱’(5월 8~9일), 6월 공동기획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6월 8~14일), 7월 현대무용 ‘짐-계급사회’(7월 4일) 등이 펼쳐진다. 이밖에 제주 창작뮤지컬 ‘고래의 아이’ 서울·제주 공연과 국립국악원 ‘씻김굿’, 국립합창단 ‘시네마 클래식’ 등도 예정돼 있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은 2026년 첫 기획공연 ‘제주 플레이리스트 2026 볼륨.1(JEJU PLAYLIST 2026 VOL.1)’ 지금’을 이달 21일 오후 5시 제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신규 관람층을 유입해 문예회관 관람층의 세대·장르 다양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지소쿠리클럽이 무대에 오른다. 관람료는 1층 2만5000원, 2층 2만원이다. 예매는 이달 4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에서 하

면 된다.

‘제주 플레이리스트 2026’ 공연은 8월과 10월에도 이어진다. ‘그 때’라는 이름을 단 015B 공연(8월 29일)과 ‘여전히’ 쎄시봉 공연(10월 31일)이다.

또 클래식, 국악,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기획공연이 이어진다. 제주 창작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4월 11일), 어린이 오페라 ‘루카의 모험’(5월 2일), 연극 ‘분홍립스틱’(5월 8~9일), 6월 공동기획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6월 8~14일), 7월 현대무용 ‘짐-계급사회’(7월 4일) 등이 펼쳐진다. 이밖에 제주 창작뮤지컬 ‘고래의 아이’ 서울·제주 공연과 국립국악원 ‘씻김굿’, 국립합창단 ‘시네마 클래식’ 등도 예정돼 있다.

이희진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통해 도민에게 세대별·장르별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예술 ‘이중섭의 흔적’

네 번째 아카이브 전시

서울·대구 시기 조명



이중섭 작품.

화가 이중섭(1916~1956)의 삶과 예술활동을 조명하는 아카이브 전시의 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중섭의 마지막 활동시기를 들여다본다.

서귀포립미술관은 이달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귀포시 이중섭 전시공간(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이중섭 아카이브 전시 4부: 1955~1956년’ 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이중섭의 서울·대구 시기를 조명한다. 이중섭이 오랫동안 준비한 서울 미도파화랑 전시와 대구 전시를 끝내고 1956년 작고하기까지 그의 삶과 예술 활동을 150여점의 기록물로 들여다본다.

서울시기는 당시 서울 미도파화랑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호응도와 이중섭의 교유관계를 짐작할 수 있

는 방명록과 이중섭의 마지막 주거지인 정릉에서의 삶과 예술 활동을 다룬다. 대구시기는 살아생전 그의 마지막 전시인 대구 전시 준비 상황과 심신의 피로감으로 접절된 대구와 은관에서의 생활상을 당시 제작한 작품들과 함께 살펴본다.

미술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그리워하며 예술을 놓지 않았던 작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소정기자